

여수 금오도 비렁길 직항로 뜬다

백야도~함구미~직포 간 여객운송사업 면허 승인

내년초 하루 4회 이상 왕복운항...관광객 급증 기대

연간 30만명 이상 찾는 남해안 최고의 관광명소인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비렁길의 사투리) 직항로가 개설됐다. 24일 (주)좌수영해운에 따르면 여

수 지방해양항만청이 '백야도~함구미~직포' 항로 운항면허 신청을 최종 승인, 여수 화정면 백야도에서 관광 여객선을 이용해 40여 분 남짓 천혜의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남면 금오

도 '비렁길'을 곧바로 갈 수 있는 직항로가 열렸다.

백야도는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추진중인 11개의 교량중 첫 번째로 완공된 백야대교가 위치한 곳으로, 향후 여수지역 해양관광의 관문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오도 함구미 마을은 '비렁길' 등산로 입구 마을이며, 직포는 '비렁길' 중심(2구간 중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주)좌수영해운은 앞으로 접안 시설 등을 확충한 후 156급 차도선(정원 100명·차량 24대)1척을 투입해 내년초부터 하루 4회 이상 왕복운항 할 예정이다. 백야도에서 함구미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되며, 함구미~직포는 20분 남짓 걸린다.

그동안 '비렁길'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여수 돌산읍 신기~여천항, 여수 여객선 터미널~함구미 등 도선을 이용, 여천항 등지에서 내려 등반로 입구인 함구미 마을까지 5km이상 택시나 버스, 도로로 이동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비렁길'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제기한 불만 해소를 위해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했다.

여수시와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그동안 해상 교통불편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던 '비렁길'에 새로운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비렁길' 관광이 제2의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수영해운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교통로가 없던 직포마을 주민들과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 "그동안의 '비렁길' 등반은 바람에서 바다를 보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바다에서 바람을 보는 새로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도를 찾은 관광객은 2009년 7만8885명에서 2010년 9만5950명, 지난해 31만9953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독거노인들에 말뱃 봉사

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은 지난 21일 보성군 복내면 체육공원에서 주암댐 주변지역 노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암댐 실버교육원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y@kwangju.co.kr



고흥군,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고흥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전국 1071개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결과로 재정 인센티브 3억원과 함께 지역발전위원회 기관 표창장을 받았으며, 올해 지역발전 우수사례집에도 실려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군은 지난해 도서(섬)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균형발전과 섬 주민 복지 증진, 소득증대 전략 등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지역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고흥군 송자섭 부군수(사진 오른쪽)는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향하고 관광과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집중 추진한 결과"라며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지역인 소득기반 강화와 기초 생활시설 확충, 도·농어촌 간 생활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순천시, 태풍 '볼라벤' 소액 피해자 대책마련

2546세대에 2억여원 특별지원

순천시는 태풍 '볼라벤'으로 입은 소액 피해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사유시설 태풍피해 가운데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50만원 이하 2546세대 피해자에 대해 시 자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대책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국고 부담 기준 미달인 5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 대상으로 국고지원이 제외된 세대를 대상으로 시비 2억27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중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y@

'고흥 우주쇼' 보러오세요

군, 10월 나로호 3차 발사 맞춰 관광객 유치 만전

거금대교 풍물장터·열차운행 등 남도의 맛·흥 제공

고흥군이 10월말 예정인 나로호 3차 발사에 발맞춰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상 황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광과 장들을 초청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3차 발사를 전후해 '고흥은 우주다' 축하 쇼를 개최하고, 서울역~순천역을 운행하는 임시 관광 열차를 운영한다. 또한 '거금대교 365 풍물장터' 등 다양한 풍물 장터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신명나는 남도의 맛과 흥을 제공하고, 숙박을 하는 단체 관광객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나로호 발사를 직접 눈으로 관람할 수 있는 봉납 등대 등 10여 곳을 확보하고, 교통안내 등 관광객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서울역, 순천역 여행센터, 메이저급 여행사를 직접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전 북

여암 신경준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순창서 내달 5일 국제 학술대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인 여암 신경준 선생(1712~1781)의 탄신 300주년을 맞아 10월 5일 순창 군민복지회관에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순창군과 군 문화원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순창출신 여암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알리고, 순창 지역 역사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학계관계자와 향토사학자, 전국 산악인, 관광해설사를 비롯해 순창문화원 및 육천 향토문화사회연구소,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해 신경준 선생의 업적을 학제적으로 검토하고 고증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문

학·국어학·지리학·과학사 등 5개 분야의 주제논문이 발표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여암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순창의 위상 제고와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여암 신경준선생 유지 등 귀래정 주변을 정비해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역사탐방 코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암 신경준 선생은 우리나라 산악기 체계를 대표로 정리한 '산경표'(山經表)를 저술하고, '팔도지도'와 '동국여지도'를 완성하는 등 실학을 바탕으로 한 고증학적 방법으로 우리나라 지리학을 개척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보은염 이운행사 재연

보은염(報恩鹽) 이운(移運)행사가 재연됐다.

지난 23일 열린 '고창 선운사 문화제'에서 백제시대 검단스님에게 소금 제조법을 배우고 교화된 도적들이 은혜를 갚고자 소금을 절에 바쳤다는 전설을 되살리는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단 신

전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3분기 회의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3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과 교육지원청, 청소년 단체 등 16명의 지역협의회원들이 참가해 3분기 사업 보고와 함께 2013년 계획 등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지원방안

을 논의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 조례 제정을 비롯해 ▲말의 씨앗에서 열매까지' 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에티켓 북 제작·배포 ▲여름방학 가족힐링 캠프 운영 등을 추진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근대사박물관 11월부터 유료화

군산시 근대사 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개인 20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700원), 어린이나 군인은 각각 500원(단체 300원)이다. 군

산 시민은 관람료의 50%를 할인 받는다. 한편 지난해 9월말 개관한 군산 근대사박물관은 총 182억원이 투입돼 부지 8347㎡·건물 연면적 4248㎡(지하 1·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길성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축제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8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축제(10월 10~14일)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축제 어플리케이션(어플)이 개발됐다.

축제 어플은 축제정보와 위치 정보, 여행정보, 미디어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소개, 김제시 관광지·숙박·음식점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나머지 스마트폰은 '플레이(Play)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자전거안전교실' 운영 큰 호응

최근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읍시 자전거연합회에 위탁해 시민과 초등학생 등 330명을 대상으로 이룬

교육과 주행을 병행했다. 김성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북교육청, 전 산하기관 대상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감찰 대상은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휴가·조퇴·외출·출장 등 개인별 복무관리 실태 ▲공문서 처리 및 관리 실태 등이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장부 정리 및 지출서류 구비 실태 ▲신용카드 사용 및

대장 정리 ▲기타 비위 행위 등이다. 도 교육청은 감찰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마련 등 사후 조치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적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명희 사무관은 "이번 감찰은 추석을 앞두고 흐트러지지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검소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교직사회 불신 해소 및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농수산물 수출 호조세

1~8월 1억2279억달러 전년비 26% 증가...對日수출 4467만달러 1위

전북 도내 올해 1~8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총 1억227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증가했다.

이는 전국 증가율 6.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수출 증가율 1위의 성적이다.

부류별 수출실적을 보면 신선 농산물 2,390만 달러로 31.4% 증가했고 ▲가공 농식품 4110만 달러 10.

5% ▲축산물 1420만 달러, 18.4% ▲임산물 1,130만 달러 64.1% ▲수산물 3230만 달러 37.9%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수출은 지난해보다 42% 급증했다. 지난해는 대지진 피해로 수출액이 2010년과 비슷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4천46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1762만 달러), 태국(1135만 달러), 미국(910만 달러), 대만(857만 달러) 등 순이었다.

수출 품목에서는 김(원초)이 1824

만달러로 으뜸을 차지했다. 장미(1166만달러), 조미 김(1163만달러) 등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지진 피해에서 벗어난 일본과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도내 농수산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